

한국에서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李晋吾(釜山大 漢文学科)

1. 수입된 한자문화와 기존의 고유지성

한반도 지역으로 한자문화가 수입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은 도움이 되었는가, 손해가 되었는가? 만약에 이 지역이 한자 문화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자생적 문화 발달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여 매우 개성적이면서도 주체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자 문화의 도입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발전단계에 따라 사회조직이 거대화되어 가면서 광범위한 지역과 다수의 구성원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문화만으로는 부족했으며, 주변 지역과 끝없는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경쟁에서 버티어나가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서 더 빨리 발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대국가의 형성에 따라 한자문화를 재빨리 도입하여 거대국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존역량을 키웠다는 측면에서는 한자문화의 도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도입된 한자문화가 고유문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고유문화를 압도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화의 발전이 이질적 문화의 복합에 의해 상승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¹⁾,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한자문화가 기존의 고유문화와 대등한 복합현상을 보이지 못하고 외래의 문화가 기존의 문화를 압도해 버림으로써 문화의 생산적 발달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외래 문화가 기존의 고유문화를 완전히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한자는 아직 독자적인 문자표기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던 한반도 지역에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표현되고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양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치원이 쓴 「鸞郎碑序」는 고유지성의 면모를 밝힐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나라에 玄妙한 도가 있으니, 이를 風流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게 된 연원은 『仙史』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그 속에는 세 가지 가르침을 다 갖추어 못사람들을 교화하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집안에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고, 無爲의 일에 처하여 不言之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이며, 많은 선행을 하고 악은 짓지 않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三國史記』 卷4, 眞興王條)

이 글에는 우리 고유지성의 중요한 면모인 風流사상을 儒仙道 三教에 건주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교 이상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최치원이 중국적 사고에 충실했던 만큼, 스스로 중국의 사상체계인 유불도 삼교에 준해서 풍류도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1) 중국문화도 사실은 인근의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여 종합한 것이다. 중국문화의 극히 중요한 한 부분인 불교도 사실은 인도에서 들어온 수입문화이다. 중국이 자랑하는 禪佛敎는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와 중국 고유의 전통인 도교를 복합시켜 재창조한 것이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설명에서도 보면 풍류사상이 유불도의 모든 사상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불도 각 사상의 중요한 일면들을 아우르고 있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윗글에서 언급한 『仙史』라는 책의 존재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 고유 지성을 ‘仙’이라는 용어로 지칭했으며, 독립된 역사서로 존재할 만큼 그 내용이 풍부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2. 고유지성의 담당자

그러면, 고유지성의 담당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고유지성의 내용 자체가 다양했을 것인 만큼, 그 담당자의 모습도 다종다양했음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그 다양한 담당자를 두루 추적하기는 어렵고, 한 단면만 제시하고자 한다. 『三國遺事』에 보면 月明師나 忠談師나 하는 인물들이 나온다. 이러한 인물들이 고유지성의 중요한 담당자들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추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月明師가 兜率歌를 지을 때 경덕왕이 하늘에 해가 둘이 있으니 노래를 지어 불러 그 중 하나를 없애달라고 부탁하자, 월명사는 자신은 國仙之徒에 속하여 우리말 노래만 지을 줄 알고 梵聲은 잘 모른다고 하니 왕이 우리말 노래라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한다.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旬不滅 日官奏請綠僧作散花功德 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綠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 王曰 既卜綠僧 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三國遺事』 卷5, 感通 第7, 月明師兜率歌條)

월명사는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보이는 바로 仙의 부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도 승려로 인식되고 있었고, 한문이나 한자로 기록된 梵聲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리임을 알 수 있다. 忠談師나 融天師도 같은 부류의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지식체계를 가지고 종교계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던 이러한 인물들이야말로 아직 중국문화에 영향 받지 않았던 고유지성의 모습이었다.

3. 고유지성과 외래지성의 통합

삼국시대에는 외래지성이 한자를 매개로 한 불교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신라의 경우, 수많은 奘唐遊學僧들이 이러한 영역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만 있으면서도 인근 국가의 학문수준을 재빨리 흡수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학문경지를 개척하여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이다. 원효는 유학 가지 않고 중국의 최신 학문성과를 다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학문체계를 구축하여 역수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원효는 학문의 수입 단계에서 자체생산단계를 성취하고 역수출까지 가능하게 한 인물이었다.

원효의 위대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원효는 외래 한자 문화와 고유 지성을 통합시켰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원효는 대당유학승들이 속속 가지고 들어오는 지식 정보를 재빨리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명사나 충담사와 같이 유학승과는 다른 계통의 고유 지성들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원효는 비유학승인 大安, 惠宿, 惠空과 같은 인물과 어울렸으며, 한편 그들로부터 불교와 고유지성의 통합된 문화를 전수받았다. 외래 지성과 고유 지성의

통합은 사실 원효 이전에 이미 높은 수준으로 성취되고 있었으나, 원효는 그 통합의 형태를 새롭게 이끌었다.

원효는 저술을 하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늘 혜공스님에게 가서 물었으며, 때로는 서로 장난을 치고 놀기도 하였다²⁾고 하였다. 혜공은 출가하기 전에 어릴 적부터 이미 異蹟을 보였으며, 숨기고 있던 신이한 능력이 노출되자 비로소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보건대, 불교수업을 체계적으로 받은 승려는 아닌 것 같고, 미천한 품팔이 노파의 아들로써 민간의 지성을 전수한 사람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서 惠宿과 惠空을 같은 부류의 인물로 한 항목에 묶어 기술한 것으로 볼 때, 명백한 郎徒 출신이었던 혜숙과 같은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혜숙이나 혜공은 술을 거리낌없이 마셨던 인물이며, 혜공은 날마다 술에 취해 노래하고 춤을 취었다고 하였다. 원효는 저술을 하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혜공에게 가서 물었다고 하니, 학문적으로 혜공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원효를 능가하는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大安스님이다. 대안은 원효가 『金剛三昧經』을 풀이할 때 흘트리진 원본의 차례를 먼저 바로 잡아준 인물이었다. 또한 대안은 항상 저자거리에서 징을 두드리며 민중들에게 포교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 원효는 혜공이나 대안에게서 한 수 배우는 입장이었으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저자거리에서 포교하는 방식은 바로 이들에게서 전수받은 것이었다. 원효의 無碍行은 독창이 아니라 전수받은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바로 수입된 문화가 아니라 고유문화의 양식이었다. 따라서, 원효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한자를 매개로 한 불교지식뿐만 아니라, 고유지성의 면모도 충실히 전수해서 양자를 통합시켰던 인물로 볼 수 있다³⁾.

아쉽게도 원효와 같이 외래지성과 고유지성을 통합시켜 내는 작업은 한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려 중기에 와서 일연이 삼국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양자를 매우 균형있게 잘 통합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일연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金富軾의 『三國史記』와는 달리 우리 민족의 신화를 풍부히 포함시켜 넣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비교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자 표현을 정밀히 분석해 보면 기존의 논의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삼국유사』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즉, ‘天’자의 용례를 살펴보면 두 史書가 얼마나 큰 거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天의 개념은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 ① 물리적 실체로서의 하늘 -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 ② 理法으로서의 하늘 - 이치를 내포한 하늘. 음양사상과 밀접한 관련
- ③ 주재자로서의 하늘 - 볼 수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사의 길흉화복 등을 주재.
- ④ 인격체로서의 하늘 -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만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위의 두 역사서에 나오는 하늘을 비교해 보면 나오는 유형은 동일하나 비중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첫 번째 물리적 하늘의 대조는 양쪽에 두루 나온다. 두 번째 이법으로서의 하늘은 삼국사기에는 상당수 나오나 삼국유사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이법으로서의 하늘이야말로 유교적인, 내지는 중국적인 특징을 강력하게 갖는다고 할 만하다. 세 번째 주재자로서의 하늘은 삼국사기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나타나는 데 비

2) ‘時元曉撰諸經疏 每就師質疑 或相調戲’ (『三國遺事』 卷4, 「二惠同塵」,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1973, p.337)

3) 이에 대한 상문은 줄져, 「원효의 학문방법과 글쓰기, 그리고 미학」(『伽山學報』 8, 가산학회, 1999)을 참조하기 바람.

해, 삼국유사에서는 더러 나오기는 하나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네 번째 인격신으로서의 하늘은 삼국사기에는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정도이고, 삼국유사에는 아주 많이 나온다. 인격체로서의 하늘은 삼국유사에 실린 신화에 풍부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은 기마민족신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두 史書에 보이는 天의 용법을 보면 『삼국사기』가 중국적 세계관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반면, 『삼국유사』는 우리 고유의 세계관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중국을 경유한 인도적 세계관도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상의 역사에서 보면 성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 고유지성은 극도로 억압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도교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고유지성에 관한 관심과 자부심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의 경우, ‘仙’으로 표현되는 우리 고유지성과 매우 유사하다고 인식되었고, 심지어는 중국의 도교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였다. 한자를 매개로 한 중국적 사유와 우리 고유지성이 융합된 결정적 단계는 동학에서였다. 동학은 중국적 사유를 서양과 대립하는 동방지성의 전통으로 포함시키면서 포괄적 ‘우리 전통’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중시하는 기마민족의 전통을 살려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고유지성의 전통을 너무나 잘 살려내고 있다. 조선말기에 일어난 일련의 ‘민족 종교’의 형태가 대개 같은 맥락을 형성하였다. 성리학의 모순이 심화되고 시대의 위기에 대한 절실한 자각이 묻혀져 있던 고유지성을 되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었다.

한편 문학에서도 조선후기가 되면서 정통 한문 속에 우리의 삶과 정서를 최대한 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茶山의 朝鮮詩선언이 대표하듯이,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여 한시 속에 집어 넣는 대담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조선의 지성 양식을 극도로 거부하였던 조선 말기의 지식인 김병연(속칭 김삿갓)의 경우, 한문시와 한글시를 완전히 뒤범벅시키는 과격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에 기반을 둔 한자문화의 정통성에 극단의 배반을 보여 주었다.

4. 맺음말

전체적으로 볼 때, 한자 문화의 유입과 함께 우리 고유지성이 위축되어간 것이 우리 문화사라고 할 수 있다. 고유지성에 대해 좀더 소중히 여기고 외래지성과 고유지성을 균형있게 종합할 수 있었다면 새로우면서도 다양한 민족문화를 열 수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에 새로이 들어온 일본과 서구문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휩쓸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당장 우수해보이는 외래문화에 대해 기존의 우리 문화를 열등시해 버리는 전통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하겠다.

On Adopting and Transforming Chinese Characters and its Culture in Korea

by Lee, Jinoh (Pusan National Univ.)

In Korean Peninsular, Chinese characters were adopted a long time ago. Whether that happening performed a good function or not is focused here. That is a difficult problem. It may be wrong, however, for us to deal with it only from the viewpoint of adoption. We have to argument how Chinese character was adopted.

With adopting Chinese characters, intrinsic intelligence that had not any expedience for inscribing itself appropriately before then could be written and documented. Since that happened, many people, who took charge of intrinsic intelligence, appeared and did wonderful works through many centuries. Among many works, there is a work synthesizing and integrating the extrinsic intelligence and intrinsic intelligence. Wonhyo(元曉) did it. He imbibed Chinese knowledge from monks who have been to study in Tang(唐) Dynasty while from* intrinsic intellect took in plentiful knowledge and profound insight. In integrating heterogeneous things, he reached the culmination.

Entering on the era of Neo-Confucianism in Chosun(朝鮮) Dynasty, the intrinsic intelligence was getting to be in extreme depression. But coming to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circumstance was changed. Accompanying by an interest in Taoism within the intellect, an interest and pride in intrinsic intelligence was increased. Tonghak(東學) showed at the final stage of a long history called harmonizing the Chinese thought brought by its characters and the intrinsic intelligence. In Tonghak, we can recognize that the Chinese thought became a our tradition included among Eastern intelligence against Western thought. In such a case, Tonghak stood on the tradition of intrinsic intelligence that loves and respects mankind relying on a tradition kept by horse-riding people worshipping the Heaven. In a series of various national religions arisen in the end of Chosun Dynasty, we can find out the same aspect and nature. In literature too, there was the flowing like that.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there was a experiment that is efforts and try to describe our life and feeling through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We can see a recognition to it in Tasan(茶山, 丁若鏞)s Declaring Chosun Poem(朝鮮詩). And an adventurous try was made, which marked Korean language with Chinese characters and put it in Chinese poetry. Kimbyungyun(金炳淵, or Kimsatkat.), who was an intellect at the end of Chosun Dynasty and defied extremely a way of Chosun intellect, tried absolutely renovated style in poetry, which was mixing up two different styles of Chinese poetry and Korean(or Hangeul) poetry. That was extremely defiance and betrayal to the orthodoxy of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韓國における漢字文化の受容と變容

李晋吾(釜山大)

朝鮮半島に漢字が収容されたことはけっこう昔のことである。この漢字の収容が朝鮮半島におけるプラス役割をしたかどうかについて取り上げようとする。これは非常に難しい問題である。しかし、収容の在り方だけで、これを取り上げようとするのは間違った事かもしれない。漢字はどういうふうに関容されたかのことについて話し合う必要があると思う。

以前には文字で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適当な手段がなかったが、漢字の収容によって文書化し、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のようなことが起きた以後、本質的な知識を担当する人々が登場し、数世紀にかけて優れた業績を作り出した。彼らの多くの業績には本質的知識と非本質的知識を総合して、統合することがあった。これは元暁(ウォンヒョ)という僧によって行われた。元暁は豊富な知識と深奥な洞察力の持ち主である当時、唐王朝の留学したことのある修道僧に中国の知識などを受け入れた。

朝鮮王朝の、新たな儒教の時代に差しかかって、その本質的知識とはだんだん衰退の道を歩むようになった。しかし朝鮮王朝の後期に入ってきて、この状況は変わり始めた。知識層の道教についての関心が高まり、本質的知識に対しての彼らの興味とプライドも増えていった。東学は漢字とその本質的な知識で中国思想を調和させていた長い歴史の最後の段階に登場したのである。東学の観点にとって中国の思想は西洋の思想に反する東洋の知識を含めた我々の伝統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場合、東学は天を崇拜する騎馬民族によって守ってきた伝統に依存する人類を愛して尊敬する本質的知識の伝統に根を下ろしている。このように、朝鮮王朝の後期にできた多様なナショナリズム的な宗教から自然と同じ様子が見つけられる。これは文学にとっても同じなのだ。

朝鮮王朝の後期には我々の生きと感情を中国古典文学を通して表しようとするチャレンジや努力があった。これは朝鮮の実学者である茶山(ダサン-丁若鏞)の朝鮮詩にも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韓国語を漢字で表記し、これを中国詩に挿入しようとするアドベンチャが起きた。朝鮮王朝の後期の知識人である金炳淵(キムビョンヨン)は中国詩と朝鮮詩の二つのスタイルを混ぜ合わせて詩の形式を改善しようとした。このようなことは非常に挑戦的で、漢字文化の定説に対する一種の裏切りであったのだ。